

# 밤하늘에 닿은 영혼의 울림, 마침내 별이 되다

김허경의 미술기행

프랑스 아를과 빈센트 반 고흐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 (1888)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의 배경인 론강의 풍경.

당시 인상파 화가들에게 빛은 대지 위의 모든 자연과 사물을 깨우는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물체의 윤곽, 색상,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야외에 나가 빛을 탐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이 공존하는 밤을 그리는 일은 일종의 모험과도 같았다.

별처럼 빛난 고흐의 예술은 병실 밖 너머 어둠이 내린 마을의 밤 풍경을 그린 '별이 빛나는 밤' (1889)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림에서 칠혹 같은 하늘은 소용돌이에 휩싸인 달과 별을 품고 있으며, 이들의 우주적 교감은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별이 빛나는 밤' (1889).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고흐가 병실밖 마을의 밤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은 고유의 번호가 매겨진 총 928통에 달하는 고흐의 편지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편지의 내용은 고흐가 나고 자란 네덜란드의 브라반트, 헤이그, 누에넨, 벨기에의 앤트워프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아를, 생레미, 오베르에 이르기까지 고흐의 자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내적 심상과 예술세계를 함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아를에서 쓴 편지는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한다. "언제쯤이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별이 빛나는 하늘을 그릴 수 있을까?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다. (1888.6.8)"

반 고흐가 일기를 쓴 1888년은 화상이었던 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파리에서 남부 아를의 '노란 집'으로 거처를 옮긴 시기였다. 그가 아를에 머문 기간은 열다섯 달 남짓에 불과하지만 '아를의 원형경치', '아를의 여인들', '아를의 무도회장', '아를의 랑그루아 다리', '아를의 밤의 카페' 등 300여 점의 그림을 남겼을 정도로 창작의 열정에 휩싸였다.

아를에 정착한 후 테오에게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라고 편지를 띄운 고흐의 삶은 어땠을까?

1888년 아를의 여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그는 라마르틴 에 위치한 허름한 방 4개를 빌려 '예술가 공동체'를 꾸며 함께 생활하게 될 폴 고갱을 에타러 기다리고 있었다. 긴 설득 끝에 고갱이 '노란 집'에 도착했을 때 고흐가 그린 두 점의 해바라기 그림이 벽면에 장식되어 고갱을 반기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해바라기 열네 송이' 외 다섯 점과 2차 대전 당시 소실된 '해바라기 여섯 송이', 개인 소장품 '해바라기 세 송이'를 포함한 총 7점의 해바라기 연작은 모두 1888년 아를에서 제작된 것이다. 물론 아를로 오기 전 파리에서도 겪은 해바라기를 바다에 두고 관찰한 그림을 남겼지만 아를의 해바라기는 화병에서 뻗어 나오는 초록색 줄기와 노란색 꽃잎이 태양과 같이 꿈틀거리고 있어 고흐를 상징하는 '영혼의 꽃'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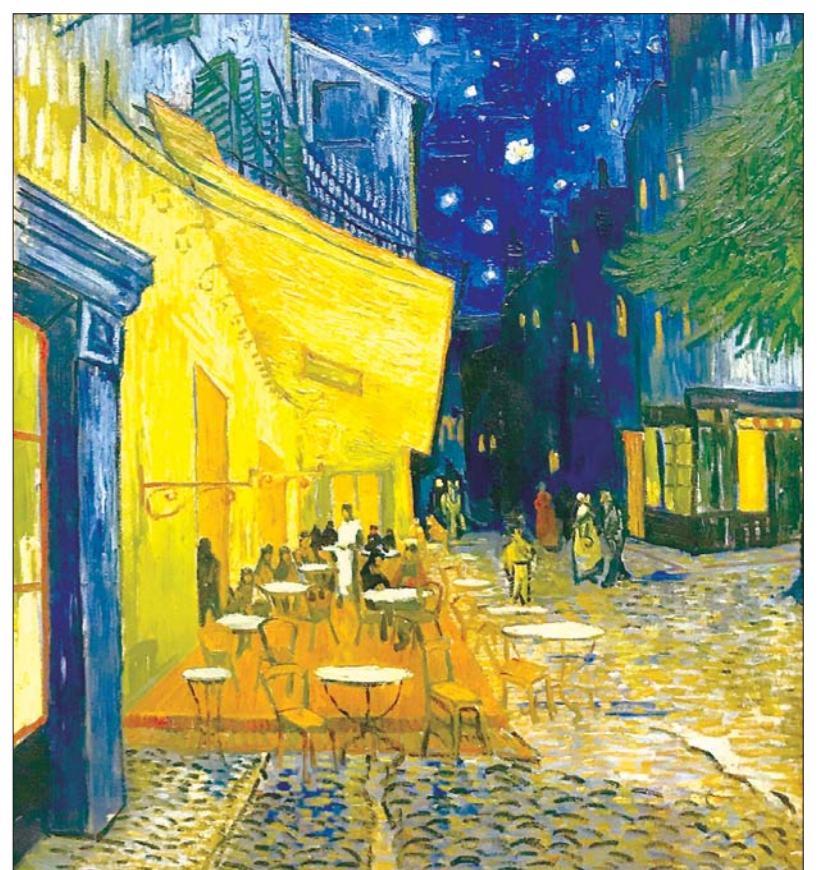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당시 고흐와 고갱이 거주했던 '노란 집'은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빈터에 '노란 집' (1888)의 그림이 실린 표지판만이 집의 위치를 확인해 주고 있다. 다행히 '노란 집'의 실내는 세 점의 '고흐의 방' 연작, '고흐의 의자', '고갱의 의자' 등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

아를에 와서야 처음으로 어두운 검은색을 쓰지 않고도 밤하늘을 그릴 수 있게 된 고흐는 여러 개의 촛불을 세운 창이 넓은 모자를 쓴 채 밤의 정경을 묘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고흐가 9월 여동생에게 보낸 서신에서 알 수



아를의 포룸광장에 위치한 반 고흐 카페 풍경.



'아를 포룸광장의 카페테라스' (1888)

있듯이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어,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을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단다. 특히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은 순간이 정말 즐거웠어"라며 격양된 마음을 감추질 못했다.

아를의 밤은 차양에 비친 노란 불빛과 푸른 밤하늘을 담은 '아를 포룸 광장의 카페테라스' (1888)에서 빛을 발한다. 당시 인상파 화가들에게 빛은 대지 위의 모든 자연과 사물을 깨우는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물체의 윤곽, 색상,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야외에 나가 빛을 탐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이 공존하는 밤을 그리는 일은 일종의 모험과도 같았다. 고흐에게 밤의 정경은 색채와 형태의 구성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투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적인 힘과 정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주제였다.

고즈넉한 작은 골목길을 굽이굽이 걷다보면 그림 속 아를포룸 광장의 카페와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인 까담에 노란 벽면에 '반 고흐'라는 이름이 새겨진 카페는 고흐의 발자취를 찾아온 여행자들이 온종일 활기에 차 있다. 밤이 깊어지자 레몬 빛깔로 채색된 카페의 차양과 황금 불빛의 전등이 어우러져 광장의 바다까지 노랗게 물들었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고흐가 좋아했던 예멘 모카 마타리의 향을 음미하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밝은 햇빛에 가려 볼 수 없었던 무한한 생명력은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밤하늘을 운행하던 별들은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1888)에

서 수평선 너머 가스등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맞닿아 강물위로 쏟아져 내렸다. 고흐는 유유히 흐르는 론강의 밤하늘에 코발트블루를 문힌 붓자국을 힘껏 펼치고, 노란색의 방사형 별빛 가운데 흰색 물감을 짜내어 점을 찍음으로써 아름다운 별빛을 수놓았다. 강둑 위에 앉아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스케치했던 고흐는 1888년 9월 2일 친구인 외젠 보흐에게 보냈고 이후 유휘로 완성된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파리의 '앙데팡당전' (1889)에 출품되었다. 고흐 생전에 유일하게 판매된 단 한 점의 그림인 '아를의 붉은 포도밭' (1888)을 산 주인공이 바로 빌레로이앤보흐 (Villeroy and Boch) 창업자의 5대손인 보흐의 누이임을 떠올린다면 당시 고흐와 보흐가 나누었을 따뜻한 우정도 즐겁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를에서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질 못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고갱과의 갈등은 두 달이 지난 즈음 다름으로 치달았고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 고흐는 자신의 왼쪽 귀 전체를 자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다. 고갱이 떠나자 고흐는 아를 병원에서 펠릭스 레이 박사로부터 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에스파스 반 고흐 (L'espace Van Gogh)로 불리는 이 장소는 복합 문화센터로 사용 중이지만 고흐가 1888년 12월에서 1889년 4월 사이 실제로 입원했던 병원 건물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때문에 정월입구에 세워진 고흐의 '아를 요양원의 정원' (1889)과 비교해 보면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까지 섬세하게 남아 있다.

에달폰 생각에 네모난 건물 가운데에 위치한

분수대 앞에 서서 고흐에게 치유의 장소가 되었을 정원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꽃들이 웅기조기 어우러진 풍경을 마음에 담아보았다.

고흐는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자 1889년 4월 아를을 떠나 생레미의 생폴 드 모술 (Saint-paul de Mausole)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게 된다. 별처럼 빛난 고흐의 예술은 병실 밖 너머 어둠이 내린 마을의 밤 풍경을 그린 '별이 빛나는 밤' (1889)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림에서 칠혹 같은 하늘은 소용돌이에 휩싸인 달과 별을 품고 있으며, 이들의 우주적 교감은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1890년 고흐는 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만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퍼져 나오는 영혼의 울림은 마침내 밤하늘에 닿았고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었다. 아를의 밤하늘이 무한한 존재의 대상이자 성장적 공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고흐의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허경은**  
 전남대학교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한 미술학 박사다. 현재 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편집위원,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을 통해 소장품 연구, 미술사 강의, 미술비평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 '호남근현대미술사' (2018) 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